

■ 12·3 비상계엄 충격 1년

“끝나지 않은 트라우마…그날의 군홃발 떠올라”

5·18 가두방송 참여자 이경희씨의 ‘되살아난 상흔’
엄습하는 공포…며칠 밤 설치고 규탄 집회 못 나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1980년 5월’을 온몸으로 겪은 이들에게 남은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다.

특히 계엄군의 군홃발에 짓밟힌 5·18 피해자와 유족들은 물론, 억울한 누명과 연행·구금으로 모진 시간을 견뎠던 이들에게 ‘비상계엄’은 40년간 가슴 속에 묻혀있던 아픔을 다시 일깨웠다.

2일 이경희씨(65·여)는 지난해 12월 3일 TV 자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문구가 등장하던 순간을 떠올리며 “숨이 턱 막히고 몸이 떨릴 정도였다.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다”고 몹시리쳤다.

이씨는 1980년 5월 당시 차명숙·박영숙씨 등과 함께 가두방송을 맡아 시민 참여를 호소한 인물이다.

5월27일 새벽, 흥보차량에 올라 마지막 항쟁의 밤을 기록하며 오전 3시까지 광주 시내를 돌며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총칼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주를 지킬 것입니다.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마지막 가두방송을 했다.

이씨는 “12·3 비상계엄 선포 문구를

보면서 45년 전의 장면이 순식간에 겹쳐 보였다”며 “눈을 몇 번이고 비볐지만 화면은 그대로였다. ‘끔찍하다’ 외에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비상계엄이 수 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날의 밤은 쉽게 지나지 않았다.

이씨는 “5·18을 겪은 지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내가 마주한 현실이 맞는지 당황스러웠다”면서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무효화 됐지만 온 몸에 소름이 끼쳐 며칠 밤을 설쳤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어이없고 황당함 뿐이었다. 운동권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5·18을 경험했던 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고 토로했다.

한동안 평온을 되찾은 줄 알았던 몸은 비상계엄의 기억을 정확히 붙잡고 있었다. 밤마다 엄습하는 공포감에 윤석열이 탄핵될 때까지 금남로 5·18민주광장(옛 전남도청 일원)에서 열린 집회에도 단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다.

80년 5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했던 현장에 다시 설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집회에 참여자라는 권유도 많았지만 집 밖을 나가지 못한 채 웅크리고만 있었다”고 전했다.

진행 중인 내란 주도세력 재판 과정 역



12·3 불법 비상 계엄 1년을 앞둔 2일 광주 송정역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시청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시 그에게 또 다른 무력감을 안겼다.

이씨는 “비극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란 세력을 두둔하거나 5·18의 진실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 참담하다”며 “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잘못이 있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아직도 법과 권력을 전 사람들이 내란 공범처럼 행동

하니 무력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씨는 끝으로 “5·18과 같은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냉혹한 심판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비상행동은 ‘12·3 비상계

엄’의 아픔과 고통을 상기하고자 오는 3일 오전 11시 5·18민주광장 상무대 앞 계단에서 ‘빛의 혁명 1년, 광주공동체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과 위경중 전 비상행동 대표, 조영대 신부, 제주항공참사 유가족 등이 참석한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법적·사회적 단죄 지지부진…신속한 처벌을”

지역사회, 불안·분노 여전…진상규명·단죄 요구
‘정당성’만 강조·책임 회피 등 비판…피로감 누적

“그 날을 누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철저한 진상규명과 신속한 처벌이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지 1년이 됐지만, 광주·전남 지역민의 기억 속 생체기는 여전히 깊게 남아 있다.

계엄을 주도한 세력은 명확한 사과 없이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고, 법적·사회적 단죄도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2일 광주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

터미널.

이곳에는 타 지역으로 향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과 이들을 배웅하러 나온 사람들이 가득했다.

커다란 여행 가방과 선물꾸러미를 든 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헤어지는 가족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터미널 대합실에서 누군가 “12·3 비상계엄 1년”을 언급하자, 시민들의 시선이 일제히 TV 화면으로 쏠렸다.

사람들은 “벌써 1년이냐 됐네”, “그때 너무 무서웠지”라며 당시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떠올렸다. TV 화면이 바뀌어

도 표정이 굳은 채 한참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시민도 있었다.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의 아찔했던 기억이 떠올랐는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내젓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계엄 선포 직후 광주 시민들이 느꼈던 공포가 아직도 일상 곳곳에서 잔상처럼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20대 청년 정치운씨는 계엄 선포 이후부터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까지 이어진 ‘비상계엄 무효’ 집회에 빠짐없이 참여했다.

정씨는 “국회 유리창이 깨지고 군인들이 진입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보면서 손이 떨렸다”며 “그날 이후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이 계속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하지만 끝내 민주주의를 지켜낸 건 광주의 오월정신 덕분이였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광주 송정역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TV 뉴스에서 ‘비상계엄 1년’ 소식이 나오자 여행객들은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주시했다.

일부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트리는 이들도 있었다.

광주 북구에 사는 최정수씨(64)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놀라 1980년 5월이 떠올랐다”고 인상을 구겼다.

최씨는 “1980년 5월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5·18의 참혹함은 아직도 생생하다. 또다시 그 비극이 반복될까 두려웠다”면서 “모두가 잘못임을 아는 데도 당사자들은 여전히 ‘정당했다’고 주장한다. 이런 태도가 더 큰 분노를 부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망가뜨린 내란 주도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연 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비상계엄을 전국 선포했다.

그러나 국회가 단 2시간 30여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계엄은 사실상 즉각 무효화됐다. 이후 국회는 윤 전 대통령을 탄핵했고, 헌법재판소는 선포 111일 만에 탄핵을 최종 인용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항철위 전원 기피 신청

공청회 잠정 연기 결정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를 조사 중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위원 전원과 조사단 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2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전남 사소위에 공식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조사위원·조사단원 전원의 직무배제를 요청했다.

협의회는 국토부장관과 항철위에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항철위가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실질적인 조사 대상 기관에 해당함에도 사고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은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는 관제, 공항 시설, 관리·감독의 주무부처로, 전남경찰청이 일견해 수사 중인 ‘핵심 조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사위원 상당수가 국토부 전·현직

인사이며 조사단 역시 국토부와 인사 순환 체계에 있는 인물로 구성돼 있어 명백한 이해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사고 조사기관의 기능적 독립을 요구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에도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기피 신청서에는 중간조사 발표 당시 조종사에게 책임을 돌리는 발표가 이뤄졌다는 주장, 유가족에 대한 핵심 정보 비공개, 현장 사진 촬영 금지 지시, 조사단장의 권한 남용 등도 함께 언급됐다.

협의회는 “사전 공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절차적·내용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는 요식 행위를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항철위는 4~5일 예정됐던 공청회를 잠정 연기했다. 항철위 측은 유가족과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의 공식 연거요청, 현장에서 제기된 안전 우려 등을 고려해 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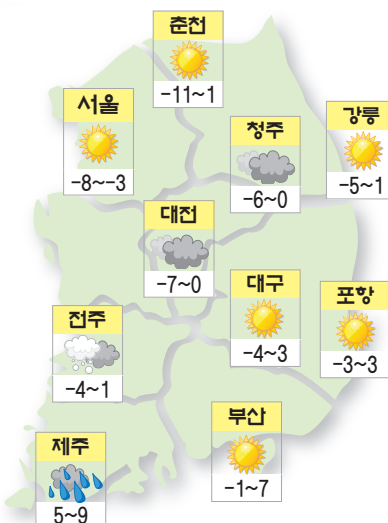
항공 기내식 만들기 체험

소화아람일터 장애인들이 2일 오후 남구에 위치한 광주대 식품영양관 실습실에서 열린 항공 기내식 만들기 체험 활동에서 호텔조리제과제빵학과 및 항공서비스학과 학생들과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맑음	07:24	달림	15:34
맑음	17:20	달림	05:07



광주	구름	-2~3
목포	구름	-2~4
여수	맑음	-1~5
순천	구름	-2~4
구례	구름	-3~3
광주	맑음	-2~5
원도	구름	-1~6
목포	구름	4~7
고흥	맑음	-2~6
진도	구름	1~6

목포	미물(고)	12:38 / ---:---
여수	미물(저)	05:26 / 18:10
	미물(고)	07:35 / 19:43
	미물(저)	00:59 / 13:38

음주운전 전복사고 낸 40대

○...음주운전을 하다 전복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2일 서부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인 40대 A씨는 이날 오전 1시18분 광주 서구 광천동 일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충돌한 뒤 전복사고를 낸 혐의를 받아.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돼. 이 사고로 변전기와 가로등 등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조사 결과 타 지역에서 출장자 광주를 방문한 A씨는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숙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제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

윤용성 기자 yo1404@

오늘 영화 4D ‘추위 절정’

기상청, 올해 ‘첫눈’ 예보

광주·전남지역 추위가 3일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첫 눈 소식 이 예보됐다.

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일 광주·전남지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겠다.

이날 예보된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1도, 낮 최고기온은 2~7도로,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다.

이번 추위는 4일 오후부터 풀리겠으며, 주말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다.

맹추위와 함께 광주 지역에는 올해 첫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3일 광주지역에 첫 눈이 관측될 경우 평년(11월29일)보다 4일 늦고, 지난해(11월 27일) 보다는 6일 늦은 기록이 되겠다.

전남 목포 지역에는 지난해 19일 공식적인 첫눈이 내렸다.

예상 적설량은 전남 북부서해안 3~8cm, 전남 서해안(북부서해안 제외) 1~5cm, 광주·전남 중부내륙은 1cm 안팎이다.

특히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는 3일 오전 전남 북부서해안(영광)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눈이 내려 주의가 필요하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